

# ‘코로나 골프’ 전남도 3명 ‘직위해제’

### 인사위원회 “간부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부족” 영암군청 7명·광주시청 1명 등 현직 12명 참석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내렸다.  
14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남 30번째 확진자로 밝혀진 영암 금정면장 A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도청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딩을 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65

조3 1항1호’(간부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에 의거,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전남도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팀장 3명이다. 도는 향후 감사관실에서 조사 후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하고, 봉급의 70%가량을 지급하며,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아 평가나 승진 때 불이익

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이들은 지난 4일 영암 소재 골프장에서 영암 금정면장(전남 30번째 확진자)과 골프를 쳤으며, 금정면장 접촉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3개과 직원들을 전원 조기 퇴근과 함께 자가격리토록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앞서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인 나타나 검체 채취(6일) 받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중견간부반 교육에서 만난 동기들과 3개소로 나눠 영암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골프 라운드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12명이 참석했다.  
공무원 골프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자가 19명, 지역발생 감염자 14명을 기록했다.

## 제주행 이륙 직전 ‘가족 확진 통보’ 자진신고

### 승객 모두 비행기서 내리게 한 뒤 방역·소독 실시



광주공항 탑승교를 방역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제주행 여객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 탄 사실이 알려지면 서 이륙이 1시간 이상 늦어졌다.

14일 광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광주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티웨이항공편의 승객 1명이 이륙 직전 가족의 코

로나 확진을 통보받았다.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 승객은 통보 받은 내용을 항공사에 알렸다.  
공항과 항공사는 승객 186명을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방역·소독 작업은 탑승교, 공항 내부 등에서도 이뤄졌다.  
항공사는 이 승객과 밀접 접촉한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시민은 광주 북구 오치동 T월드 관련 50대 남성 확진자의 자녀로, 복구보건소는 공항에 구급차를 보내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시민과 동행자, 개인사정으로 탑승을 포기한 시민 등 3명을 뺀 승객 183명은 원래 출발시간보다 1시간22분 늦은 오전 10시 52분쯤 제주로 떠났다.

최이슬 기자

## 선별 진료소 방문자가 격리수칙 위반 고발 검토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행위도 강력하게 법적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는 것은 언제라도 양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검체채취를 한 사람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선별진료소 방문자를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내시경 중 천공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

대장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를 방치,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대장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더해져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한 내과원장 A씨는 2015년 환자 B씨(당시 68세)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이 생겼다.  
검사 후 B씨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진정제 등을 투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으로 장벽이 얇아진 B씨에게 발생한 자연 천공이거나 일반적인 부작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장 내시경을 마쳤다”며 “B씨가 복통을 호소한 후 7시간 이상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블로그에 허위 비방글 올린 공무원 벌금 50만원

상담만 받은 치과에서 발치한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치과를 비방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김해시 한 병원의 블로그에 ‘다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요. 발치도 의사책임이 아니라 치위생사분이 해주시고 믿음이 안가요’라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작 A씨는 이 병원에서는 사랑니에 대한 상담만 받고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여부라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전과 25범 70대 절도범, 출소 3개월만에 쇠고랑

절도 등 전과 25범의 70대가 출소 3개월만에 또다시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지 3개월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7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진주 중앙시장에서 80대 여성의 장바구니에서 손가방과 노점 상인들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진주 중앙시장 2회, 서부시장 2회 등 총 4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A씨는 소매치기 등 절도 전과 20범, 폭행 등 전과 5범 등 총 전과 25범으로 최근에는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14일 출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는 출소 9달만에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으로 징역 2년을 복역했다.  
또, 2016년에는 출소 1년도 안돼 사천의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을 상대로 현금을 훔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젊은 시절에는 전곡을 돌며 원정 소매치기 등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연고지인 진주와 인근의 사천 등 재래시장에서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첫 범행은 23살때로 진주의 전통시장에서 상인의 호주머니를 털다가 붙잡혔으며, 현재까지 복역기간만 40여년이다. 당시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A씨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